“군민 소통 ‘살기좋은 진도 만들기’ 5대 혁신행정 역점”

김희수 진도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자 간담회

잘사는 산업·행복한 복지·머무는 관광·섬기는 행정 중점 추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수매 장려금 확대 등 농어촌 지원 총력

“진도항 여객터미널을 새로 만들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 농어민 판로를 넓히는 등 살기 좋은 농어촌 진도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군정을 이뤄내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은 임기 동안 군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내걸고 5대 혁신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가 제안한 5대 혁신 행정은 ▲다 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 등이 포함됐다.

김 군수는 ‘현장 중심’에 서서 농어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유명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맥도날드와 손잡고 ‘진도 대파’를 활용한 햄버거가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이 밖에도 편의점 CU에서도 진도 대파를 활용한 간편식이 선보여졌다.

다음 달에는 로컬푸드 매장과 어업지원센터, 식당 등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진도군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필리핀 리잘시에 이어 올해 3월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진도군은 122명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농어촌에 제공하고 있다.

또 진도군은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도항에 여객터미널을 지난달 준공하고, 도명항·동육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을 통해 어항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올해 김 생산액이 늘면서 진도 김 어가들의 평균 연 소득은 6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진도군 측은 내다보고 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업인 기계·장비 지원 등 보조사업 농가 지원율을 10% 상향하기도 했다.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연령을 80세까지로 확대하고, 마을 공동급식 지원 단가는 350만원으로 올렸다.

벼·보리·구기자·울금 생산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농정 특수 시책 가운데 하나이다.

김 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활발하게 건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진도군은 지난해보다 302억원 늘어난 4607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국·도비 1774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성장을 초석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올해 상반기 어촌신활력증진사업(100억원), 작은섬 공도 방지사업(40억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60억원) 등 대형 국비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도군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공모사업 56건 461억원을 확보하는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진도군은 미래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올해부터는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1000만원, 셋째 아이는 2000만원을 주는 등 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고 있다.

올해 봄 열린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는 3만명 이상 관객을 모아 28억원 상당 경제 효과를 거뒀다. 진도군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원금을 더 주고,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된 민속문화예술특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볼링장과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7명으로 구성된 진도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창단하는 등 공공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군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군민이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태평양도서국과 ‘태평양 기후위기 대응’ 맞손

키리바시·마셜제도·팔라우 참여
협의체 구성…기금 지원·연대 활동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대 활동에 나섰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평양 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Pacific Climate Crisis Response Council)’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고, 오직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중 기후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정부가 뜻을 모아 구성한 협의체다.

특히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용빈 국회 1.5° C 포럼 책임의원이 협의체 발족에 큰 힘을 보탰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공동의장으로는 한국의 박우량 신안군수, 태평양도서국의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문화관광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테아보 키리바시 교육부 장관, 트레거 알본 이쇼다 주한 마셜제도 대사가 맡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형제들로서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안군은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우리의 형제인 태평양 도서국들과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이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최미숙 전남도의회 의원, 이용빈 국회 1.5° C 포럼 책임의원, 김원이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서삼석 국회예산결산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문화관광개발부 장관, 오시난 Global Business Association 회장, 조슬린 마셜제도대사 배우자와 가족, 김성인 전 주피지한국대사, 카도이 룰레케드 팔라우 관광청장.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향후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에 기금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신안 섬대학(로빈슨크루소대학)에 대상 국가 학생들을 우선 초청해 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태평양 맹그로브 나무 심기’ 캠페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위기대응은 지난 5월 29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과업 중 하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4차산업 기술 군정 접목 컨설팅

조병완 교수 초청 연계 방안 논의

완도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군정과 연계한 아이디어 컨설팅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가상현실(VR) 등을 발빠르게 군 역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 받고자 마련됐다.

조병완 한양대 명예 교수를 초청해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수산업 디지털 혁신 구축 등을 4차 산업 기술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완도군은 4차 산업 혁명 학습 동아리 운영, 부서별 전담팀을 구성·운영 등으로 해양치유·해양바이오 등 주요 사업에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드론을 이용한 적조 예찰,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에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바다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산 양식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 빌리지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시대 변화에 맞춰 해양치유 등 군 역점 사업을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해 추진하고 공직자들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 내일 개장

“공룡도 보고, 물놀이도 즐겨요.”

해남공룡박물관 내 물놀이 체험장이 8일 개장한다.

물놀이 체험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매회 40분씩 하루 총 5회 운영된다.

개장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개장하지 않는다.

공룡 물놀이 체험장은 유아와 어린이에 특화된 시설물로 13세 어린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공룡 물놀이터, 바닥분수, 샤워실과 휴게시설을 갖췄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해남공룡박물관은 물놀이 체험시설 외에도 여름철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바닥분수, 안개 분사기 등 시설과 그늘 쉼터 등을 박물관 야외 곳곳에 배치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박물관과 함께 330만㎡의 야외공원,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돼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